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80/200

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12. <보기>의 (가), (나)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<보 기>

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, 탈락, 첨가, 축약으로 구분된다.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.

(가)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,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,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.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.

(나)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, 한 자음이 탈락한다.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.

- ① ‘꽃힌 [꼬친]’에는 (가)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② ‘뭉이 [목씨]’에는 (나)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③ ‘비웃 [비웁]’에는 (나)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④ ‘얇고 [안꼬]’에는 (가), (나)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- ⑤ ‘옹고 [옹꼬]’에는 (가), (나)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.

[가]의 개념은 평파열음화입니다. 평폐쇄음화라고도 합니다.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음절끝소리 규칙으로 정리하며, 받침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종성만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배우면, 음운 변동의 큰 분류를 인식해 학습하기 어려워집니다. 따라서, 음절끝소리 규칙은 크게 3개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. ① 평파열음화 (교체), ② 자음군단순화 (탈락), ③ 음운 변동 없음(ㄴ ㄹ ㅁ ㅇ) 이렇게 됩니다.

평파열음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

ㄱ ㄱ ㅋ	⇒	ㄱ
ㄷ ㄷ ㅌ ㅅ ㅅ ㅈ ㅈ ㅊ ㅎ	⇒	ㄷ
ㅂ ㅂ ㅍ	⇒	ㅂ

위와 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평음(예사소리), 경음(된소리), 격음(거센소리)이, 평음이면서 파열음인 ㄱ ㄷ ㅂ 으로 교체된다고 하여 ‘평파열음화’라고 합니다.

[나]의 개념은 자음군단순화입니다. 종성(받침)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의 음운이 탈락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.

문제는 ‘평파열음화’라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. 음운변동의 개념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

음절 끝소리 규칙은 ‘휴지(休止)’가 있어야 발생합니다.

이 중요한 음운변동 원칙을 놓친 상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과적으로 잘못 배운 학생들은 위 문제를 풀면서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. 심지어 평가원에 오답 이의제기 하며, 자신의 근거를 설명한 대학교수님이 계셨을 정도로, 오개념이 심각합니다.

1번 선지가 정답이라며, 꽃힌을 꽃힌 => 꼰힌 => 꼬틴 => 꼬친으로 설명합니다.

- ① 꽃힌 => 꼰힌 *평파열음화 적용
 - ② 꼰힌 => 꼬틴 *ㄷ+ㅎ 축약 적용
 - ③ 꼬틴 => 꼬친 *구개음화 적용
- 이렇게 말이죠.

하지만, ① 평파열음화 적용이 안 됩니다. 이유는 **휴지(休止)가 없기 때문이죠.**

결국 위의 문제는 ⑤번 선지, ㄹㅍ에서 ㄹ이 탈락, 이후 ㅍ이 ㅂ으로 평파열음화 교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따라서 ⑤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.

여러분... 오개념 없이 정확히 학습하셔야 합니다.

정확한 개념 숙지가 필요한 추가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.

잠시 이 부분은

출제 교수님 수업 바탕의 설명이고,

학교 문법 수준에서의 설명을 덧붙입니다.

다만 위의 문제는 2009개정교육과정 시절의 시험이니

현행 2015개정교육과정 -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

음절 끝소리 규칙 = 평파열음화 교체

VS

자음군 단순화 탈락

이렇게 명확히 나눕니다.

과거에는

음절 끝소리 규칙 > 자음군 단순화 탈락

음절 끝소리 규칙 > 평파열음화 교체

위의 개념 설명은 정말 기초적 개념을 바탕으로 추론이 되는데
 이는 바투-받게 2019 수능 문제와도 사고 맥이 닿습니다.
 다시 한 번 앞에서 복습 바랍니다.

연음 법칙		절음 법칙
‘형식’ 형태소 앞		‘실질’ 형태소 앞
즉, 의미↔사고.		
의미 죽은 형식형태소 앞 연음 VS 의미 산 실질형태소 앞 절음		
발음 : □□ 뒷 음절 형식형태소 □ 의미 없으므로 발음 뭉개짐		발음 : □ ^v ■ 뒷 음절 실질형태소 ■ 의미 없으므로 발음 명확히
따라서, 음가 첫 음절로		따라서, 음끝 실현
결론은.		
의미 죽은 형식형태소 앞 축약 VS 의미 산 실질형태소 앞 음끝		
축약 : 발음 뭉개짐 (편하게. 발음 나는 대로)		음끝 : 발음 명확히 (의미 살려 발음)
① 꽃힌 => 스+ㅎ=츠 꼬친 *바로 축약		① 꽃힌 => 꼰힌 *음끝 적용
‘히’ 사동 피동 접미사. 따라서 형식형태소! 바로 축약!		

- ① 꽃힌 => 꼰힌 *평파열음화 적용
- ② 꼰힌 => 꼬틴 *ㄷ+ㅎ 축약 적용
- ③ 꼬틴 => 꼬친 *구개음화 적용

위의 과정 틀린 이유 이해 되시죠?
 다시 한 번 평가원의 완벽한 문항 설계 앞에 경건해집니다.